



당신의 마음에 예수님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까?

2021년 12월 19일 설교
누가복음 2:1~7

설교 소개

우리는 올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 마음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Mary**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보내신 메시지에 대한 그녀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에 믿음과 신뢰로 응답한 방식에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7

1 그 때에 아우구스토 가이사에게서 온 천하를 등록하라는 조서를 내리니

2 이것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이었을 때 처음으로 등록한 것입니다.

3 모든 사람이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동네로 갔습니다.

4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올라가니 이는 그가 다윗의 집 족속임이요

5 그 약혼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자와 함께 호적하게 하려 함이라

6 그들이 거기 있는 동안에 그녀가 해산할 시간이 되었다.

7 장자를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둘 곳이 없음이러라

함께 이사야서 40장 8절을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저와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당신의 말씀에 열리도록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지만 당신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으며 당신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점, 즉 큰 생각입니다.

큰 아이디어: 당신의 마음에 예수님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까?

One Voice Fellowship 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국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강제로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모국에서 위험한 상황을 탈출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현재 미국 정부가 이민 서류를 처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 관리들이 하는 일 때문에 삶이 극적으로 바뀌는 기분이 어떤지 알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누가가 2장 1절부터 3절까지 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그 때에 아우구스도 가이사에게서 온 천하를 등록하라는 조서를 내리니

2 이것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이었을 때 처음으로 등록한 것입니다.

3 모든 사람이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동네로 갔습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최초의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는 도로망을 건설하여 로마제국을 확장시킨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경찰과 소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많은 반대자들을 처형한 독재자였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좋습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통치는 "팍스 로마나" 또는 로마 평화의 200년을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많은 영토를 장악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로마제국을 자유롭게 여행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는 부분적으로 **Pax Romana** 덕분에 광범위하고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Caesar Augustus 가 그의 제국을 통제하는 방법 중 하나는 세금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면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실 때에 모든 사람이 등록을 받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사람들이 계산을 위해 먼 거리를 여행하도록 강요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태어날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대륙이 만나는 지점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전보다 더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갈라디아서 4:4-5 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 그러나 정하신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5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양자 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 아래서, 로마의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율법에서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과 딸로 입양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통제하고 계십니다.

나는 당신이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계획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 앞의 길은 예상치 못한 우회로를 가집니다.

잠언 16:9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는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기를 원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곳은 그녀의 집이자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마리아는 아기가 도착했을 때 지원과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지역의 로마 총독 퀴리니우스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4 절과 5 절을 읽어 봅시다.

4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로 올라가서 베들레헬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올라가니 이는 그가 다윗의 족속이요

5 그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하였더라

나사렛이 있는 곳과 베들레헬이 있는 곳을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임신 중에 약 90 마일을 여행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부의 명령으로 베들레헬으로 여행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 년 전에 선지자 미가는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미가 2:2,4-5.

2 “그러나 베들레헬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너무 작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의 나오심은 상고에, 태초에...

4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자기 양 떼를 치리라 그리고 그들은 안전하게 거할 것입니다. 이제 그가 땅 끝까지 큰 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5 그리고 그는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미가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미가는 누가복음 1 장 32~33 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에 관해 말한 것과 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32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이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친구 여러분.

팍스 로마나(Pax Romana)는 잔혹성과 억압으로 강제된 일시적인 인공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평안은 아주 다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이제 6 절과 7 절에서 이야기를 계속합시다.

6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때가 되었더라.

7 장자를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둘 곳이 없었기라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 얼마 후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누가는 ” 여관에 그들이 있을 곳이 없었다” 고 말합니다.

2,000 년 전에는 호텔이 흔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베들레헴과 같은 작은 마을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호텔이나 여관이 없었습니다.

”여관” 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 객실” 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가 마구간에서 태어났는지, 동굴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개인 주택에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누가는 단순히 출생을 위한 이상적인 장소를 이용할 수 없었다고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예수는 두 번째로 선택되는 겸손한 장소에서 동물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 구유” 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근처에 동물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소, 당나귀, 양을 먹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구세주는 성이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요셉을 지상의 아버지로 선택하여 중요하지 않은 작은 마을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를 지상의 아버지로 선택하셔서 빌린 방에서 태어나 나귀의 밥그릇에 누워지게 하셨습니다.

지구상의 다른 어떤 종교도 이와 같은 신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일을 결코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어떤 인간도 주님과 구세주의 탄생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왕은 궁전이나 수도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마을의 빌린 공간에서 태어났다.

마리아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나사렛에서 출산할 수 있었던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베들레헴의 적절한 객실에서 출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대를 중요시하는 문화권 출신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집에 관대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손님이 올 때 집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당신은 집을 청소합니까?

물론 당신은.

우리는 집을 청소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질문을 해도 될까요?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이할 만큼 깨끗합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3:16-17 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6 하나님은 그의 영광스럽고 무한한 자원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을 통하여 내적인 힘으로 너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17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그를 신뢰하는 대로 당신의 마음에 거처를 삼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나서 당신을 강하게 유지해 줄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거처를 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죄의 흙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씻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님이시며, 또한 자신이 오실 방을 준비하십니다.

나는 크리스마스에 가족과 함께 플로리다로 19 시간을 운전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낼 것입니다.

호텔에 도착했는데 호텔 관리자가 진공 청소기와 양동이를 주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당신이 그 방에 머물기 전에 호텔 방을 청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미친 짓이야, 그렇지?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진실을 아십니다.

그들은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분은 은혜와 빛이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마음에 사시기 전에 우리는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성탄절의 좋은 소식은 예수께서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완전한 삶을 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와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소식을 배척합니다.

마음에 죄 문제에 대한 나쁜 소식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나는 유신론자였으며 아무도 내 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나에게 멈출 수 없는 나쁜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내가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기 위해 무척 애썼습니다.

그러나 신은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의 친절로 나의 죄를 보여 주심으로 나의 마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나에게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청소력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이제까지 살았던 유일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의 피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당신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해가 가나요, 친구들?

나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복음의 좋은 소식을 받았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그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까?

나는 **Charles Spurgeon**의 설교의 긴 부분을 읽을 것입니다.

그는 150년 전 영국 런던에서 목사였습니다.

Charles Spurgeon 목사의 다음과 같은 도전적인 질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황궁과 왕궁이 나그네 예수께 피난처를 제공하였느냐?”

아니.

왕족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왕좌와 왕궁은 거의 그리스도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는 궁전보다 오두막을 더 많이 방문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정부에서, 정치인들이 법을 만드는 곳에서.

거기에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가 있었습니까?

아니, 친구들.

의회나 의회의 대표자들 사이에는 그리스도가 설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정당과 쾌락을 추구하는 자,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은 지상의 대표들 중에서 하늘의 대표를 배제합니다.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 그리스도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까?
베들레헴에는 존귀하고 존귀하며 평판이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그곳에는 그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좋은 옷, 지위와 명예, 보석과 부, 이것들은 마음에서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고 그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증권 거래소에 그를 위한 자리가 있을까요?
또는 상점과 상점 및 사업체에서.
여기에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과 교리가 조금 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는 파산, 탐욕, 사기가 너무 많아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의 학교가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예수와 그분의 무한한 지혜를 환영할 것입니까?
그러나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학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는 딥 러닝 분야에서 거의 환영받지 못합니다.
몇몇 현명한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아기의 발 앞에 어린아이처럼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많은 교육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너무 의식하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 이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가실 수 있는 곳은 한 곳이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또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성전이나 회당에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그곳에서 피난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일생 동안 가장 강력한 적들과 마주했습니다.
시편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분향하는 연기 가운데서 기도하던 곳에 그가 있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친구들.
어디를 가든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왕이 있을 곳은 오직 한 곳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집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는 회개하는 마음, 그의 은혜로 그의 피난처로 준비된 마음에 오십니다.
궁전과 정부와 온 세상은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분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까?
여기 우리 왕실 마스터가 있습니다. 그를 위한 자리가 있습니까?

여기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를 위한 자리가 있습니까?
여기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당신은 그를 위한 자리가 있습니까?
여기 끔찍한 구덩이에서 당신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까?
그분은 당신에게 오셔서 결코 당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까?
당신의 공허함과 부서짐이 그가 필요로 하는 공간입니다.
그는 겸손한 마음, 즉 합당하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마음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까, 친구?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마음에 사시고 당신을 새롭게 낳을 자리가 있습니까?
나는 희망한다.”

나는 Charles Spurgeon 과 그가 그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했는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스펄전은 자신의 회개하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력한 메신저였습니다.
나는 오늘 성령께서 당신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길 바랍니다.”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가 있습니까?
그분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당신의 마음에서 무엇을 추방해야 합니까?”

요한계시록 3 장 20 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 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현대 터키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들어오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잠긴 문 뒤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을 두드리고 “내가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느냐?
내가 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겠습니까?”
친구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배고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공허함의 해결책을 찾는 마음.
그러나 이 땅의 어떤 것도 예수님만을 위한 공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돈도 권력도 쾌락도 음식도 술도 모험도 성공도 아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에서 이 이상들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적절한 청소 장비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를 환영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마도 당신에게는 처음일 것입니다.

아마도 100 번째 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에 환영받는 손님이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이 그를 일시적인 방문자 이상으로 원한다고 그에게 말하십시오.

예수님은 영원히 당신의 목자요 주님이시며 왕이 되시기 위해 당신에게 오십니다.

당신의 마음에 그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까, 친구?

이제 함께 그에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우리가 몸을 깨끗이 하라고 고집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얼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피는 우리를 씻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각자가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현재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어 회개하고 온전케 하소서.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 여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